

간암 검진 권고안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로 간암 검진을 받으세요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국가암정보센터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본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체계적인 근거평가 방법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검진 효과

간암 사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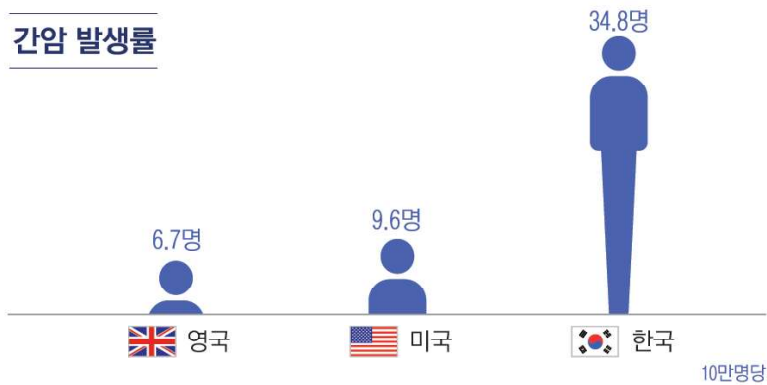
간암은 전체 암 중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률은 전세계 평균보다 2배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위험군에서 간암 검진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37%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암 발생률



검진 대상

40세 이상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화증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40세부터 간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경화증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진단 시점부터 간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방법 **간 초음파 + 혈액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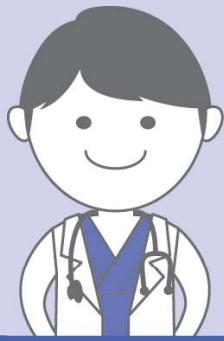
간암 검진은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 초음파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한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간암 검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간격 **6개월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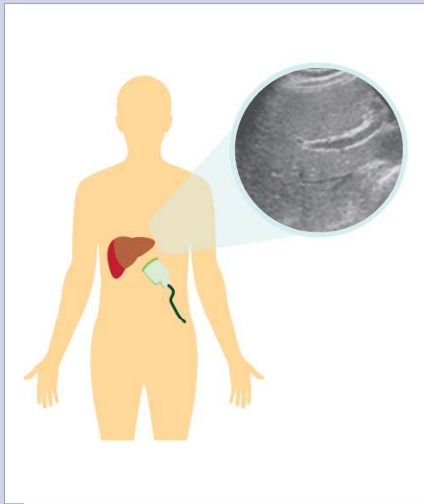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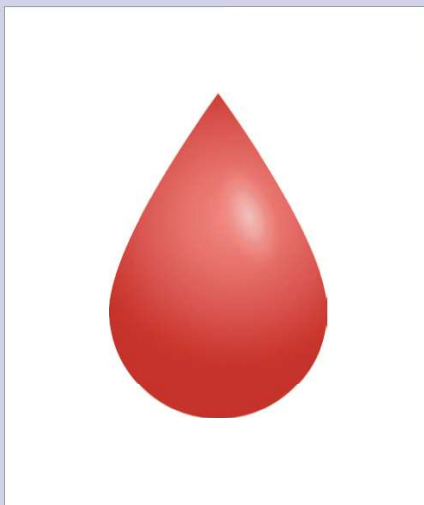
간암 검진 방법 및 주의사항

간 초음파 검사



간으로 보내 반사되는 초음파를 통해 간 속의 이상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AFP)



혈액으로 간암 검진을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받으면 간암 검진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0세 이상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화증



6개월마다



간 초음파
혈액 검사



간암 사망률 감소

간암 검진 권고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40세부터**

간경화증 **진단 시점부터**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ncer.go.kr

1577-8899